

팀홀튼, 도넛 넘어 ‘식사카페’ 전환… 푸드·디저트 라인업 확대

韓 진출 3년, 메뉴 혁신·품질 강화 베이커리·푸드 확대, ‘식사카페’ 전략 매장조리 ‘팀스 키친’ 신선도 차별화 韓 데이터 기반, 글로벌 메뉴 개발 직영 출점유지, 브랜드 완성도 제고

캐나다인 커피 하우스 팀홀튼(Tim Hortons)이 한국 진출 3년 차를 맞아 2026년을 ‘경영 2기’ 원년으로 선언했다.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과 공간 취향을 글로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팀홀튼은 28일 오전 서울 신논현역점에서 ‘2026 팀홀튼 뉴이어 워업(New Year Warm-Up)’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안태열 BKR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한국 론칭 이후 지난 2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경영 1기’였다”며 “이제는 한국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한 단계 진화한 경



팀홀튼 신논현점에서 열린 ‘2026 뉴이어 워업’ 행사에서 안태열CBO가 ‘경영 2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팀홀튼

영 2기로 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영 2기의 핵심 키워드는 메뉴 혁신과 신선도 중심의 품질 강화다. 팀홀튼은 도넛 중심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베이커리와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고, 멜트 샌드위치를 넘어 다양한 푸드 메뉴를 선보여 ‘ 식사가 되는 카페’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한국 시장에

서 축적한 소비자 데이터를 글로벌 메뉴 개발의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매장 내 직접 조리 시스템인 ‘팀스 키친(Tim’s Kitchen)’이다.

안 CBO는 “대형 프랜차이즈임에도 매장에서 직접 굽고 조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팀홀튼의 차별점”이라며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서도 신선함

을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간 전략도 전면 재정립한다. 팀홀튼은 브랜드 60년의 역사와 캐나다 정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빈티지 캐나다(Vintage Canada)’ 콘셉트를 도입했다. 기존 북미형 매장이 효율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콘셉트는 캐나다 친구의 집을 찾은 듯한 편안함과 현지의 정취를 강조한다.

이 콘셉트는 지난달 문을 연 하남미사점에 처음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매장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플래그십 스토어 출점도 검토 중이다.

국내 출점 전략은 당분간 직영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오픈을 앞둔 9개 매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 50호점 돌파가 예상되며, 신규 매장은 모두 직영점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안 CBO는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준비를 이미 마쳤지만, 브랜드가 추구하는 품질과 고객 경험을 균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신중

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푸드 품질을 고객에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 모델과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지금 단계에서는 가맹점 확대보다 직영점을 통한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도입은 이르면 2027년부터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점주 모집 요건은 대폭 강화하고, 단순한 점주가 아닌 ‘키 파트너’로 정의해 전폭적인 운영·재무 지원이 가능한 소수의 파트너만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안 CBO는 “지난 2년은 팀홀튼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 팀홀튼이 글로벌 팀홀튼의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시기”라며 “정통성은 지키되 한국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진화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역대최대 처방량… ‘성장세 가속’

1월 처방 최고치, 전년비 352% ↑ 온·오프 광고 효과, 마케팅 성과 PBM 확대, 환급 커버리지 90%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가 새해 들어 역대 최대 처방량을 기록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짐펜트라는 올해 1월 2주치를 기준으로 2024년 3월 미국 출시 이후 확인된 주간 처방량(TRx)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전월 동기 대비 약 27%(아이큐비아), 작년 동기 대비 약 352% 오른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온·오프라인 광고가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셀트리온 ‘짐펜트라’

본격적인 짐펜트라 처방 확대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현재 유튜브·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광고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 등 투트랙의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짐펜트라의 환급 기반을 빠르게 확보한 점 역시 성장세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짐펜트라 출시 이후 3대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비롯한 중소형 PBM, 보험사 등과 협상을 지속해 환급 가능한 시장 커버리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짐펜트라 투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며 처방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이어졌다. PBM 계약에 따른 환급 채널 성과는 지속되고 있다. 짐펜트라는 최근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나 그룹’ 산하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 ‘에버노스 헬스 서비스’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에버노스 등재로 시그나 계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짐펜트라를 쉽고 간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UC), 크론병(CD) 등 염증성 장질환(IBD) 분야에서 인플릭시맙이 타 제제 대비 의미 있는 치료 효과 및 일관된 의학적 혜택을 보여온 점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짐펜트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이상 대폭 오르며 현지 마케팅 활동, 환급 커버리지 확보 효과가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신임대표 선임

영업 조직 경쟁력 높여 체질 개선

보령은 최근 자회사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웅제 보령영업부문을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웅제 신임 대표(사진)는 1967년생이며 의약품 영업 전문가다.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2017년 보령에 합류해 의원 영업본부장, 영업부문장직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영업·마케팅 전반을 이끌었고 빠른 시장 대응과 실행력으로 회사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지씨셀 “차세대 세포치료제 전략 추진”

T·NK세포 포트폴리오 확대 CAR-T·CAR-NK 병행 개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 전문기업 지씨셀이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인다. 세포치료제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특히 T세포와 NK세포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 품목인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 엘씨주’ 후속 임상 성과와 상업화 경험 이 구체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부 R&D 고도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씨셀 임호용 연구본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임 연구본부장은 세포치료제 분야 전문가다. 텍사스주립대학교 면역학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



원을 거쳐 2016년 지씨셀에 합류했다. 다년간의 연구 및 개발, T세포 및 NK세포 기반 치료제 전반에 대한 이해, 임상·비임상 전략수립 경험 등을 두루 갖췄다.

지씨셀은 임 연구본부장과 함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적용,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R&D 전략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씨셀은 이미 이문셀엘씨주를 개발해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 도입한 CAR-T 치료제와 자체 개발 중인 CAR-NK 치료제를 병행 개발하는 등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비만치료제 장기지속형 제형 기술 입증

인벤티지랩

오르포르글리프론 주사제 특허 등록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차세대 비만·당뇨 치료제로 주목받는 저분자 화합물 ‘오르포르글리프론(O rfornglipron)’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제형화한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 중 오르포르글리프론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구현해 권리를 확보한 최초의 등록 특허이며, 회사는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에 대한 개별국 진입 절차를 곧 진행하여 글로벌 권리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은 GLP-1 계열 저분자 화합물 및 펩타이드 약물들을 ‘IVL-Dru

gFluidic · ’ 플랫폼에 적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에 안정적으로 봉입하고, 균일한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는 핵심 특허들을 확보하고 제형화 기술 역량을 입증해 왔다. 유한양행과 공동연구 개발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특허등록을 통해 체내 주입 후 초기 방출을 제어하면서도 장기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약동학적 제어 기술을 권리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오르포르글리프론은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개발 중인 경구용 저분자화합물 GLP-1 약물이며 비만 환자에서 매우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형 약물을 인벤티지랩의 ‘IVL-DrugFluidic · ’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단 한 번의 주사로 1개월에서 3개월 효과가 지속되는 제형으로 완성하여 특허 등록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파티온’ 군부대마트 입점

MZ 장병 피부관리 공략

동아제약은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 입찰에서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이 선전돼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점 제품은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애플 기획세트, 노스카나인 트러블 모공탄력 크림 기획세트 등 2종이다. 모두 동아제약 독자 성분인 헤파린 RX 콤플렉스와 나노-레티날 RX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트러블, 흔적, 모공 등을 관리해 준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애플은 인체 적용시험 결과, 7일 사용 시 얼룩덜룩한 피부의 3색 톤(레드, 옐로우, 브라운)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노스카나인 세럼과 병행 사용 시 피부 톤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